

연장선 개통땐 삼성역까지 30분대... 두달새 집값 1억 쯤

GTX 노선 따라가보니

검단신도시

3개 정거장, 내년 상반기 개통
초역세권 등 미래 호재 기대감
준공 끝낸 상가 공실없이 운영
우미린더시그니처 6.8억 거래

“인천 검단신도시는 GTX-D 호재와 별개로 집값을 상승시킬 여건이 많다. 주변에는 대단지 아파트들이 입주를 앞두고 있다. 내년에 인천 도시철도 1호선 검단 연장선이 들어오면 불편했던 교통도 상당 부분 해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찾아간 인천 서구 원당동 ‘우미린더시그니처’ 아파트. 단지 인근 A공인중개업소 대표는 “검단신도시 정중앙에 위치한 단지는 인천 도시철도 1호선 검단 연장선을 걸어서 이동할 수 있는 초역세권으로 거듭날 예정”이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우미린더시그니처는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13개 동, 전용면적 74~84㎡, 총 1268가구 규모의 대단지다. 지난 2022년 1월 입주를 시작했다. 공항철도와 인천 도시철도 1호선이 지나가는 계양



인천 서구 원당동 '우미린더시그니처'.

역 1번 출구에서 버스를 타고 약 30분 정도 걸렸다.

인천 도시철도 1호선 검단 연장선은 계양역에서 검단신도시까지 연결하는 6.825km, 3개의 정거장을 건설하는 노선이다. 지난 2020년 10월 착공해 2025년 상반기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인천광역시 도시철도건설본부는 지난 8일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 연장선 전 구간 지하터널이 하나로 연결돼 사통팔달 도시철도망을 구축하고 있다고 했다.

도시철도건설본부는 검단 연장선이 개통되면 검단신도시의 신규 교통수요

를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동시에 공항철도와의 연계성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 도심지역은 물론 송도국제도시 등과의 연계성이 한층 강화돼 도시철도 중심의 대중교통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한다.

단지 인근 B공인중개업소 대표는 “단지 주변에 준공한 상가는 대부분 주인을 찾아 공실 없이 운영되고 있다”면서 “GTX-D 노선 이외에도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연장선과 인천지하철 2호선 연장,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인천지방감찰청 북부지청 신설 등 미래 호재가 상당하다”고 전했다.



인천 서구 원당동 '호반써밋1차'.

/김대환 기자

정부는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를 열어 GTX 전체 노선을 포함한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GTX-D·E·F 신규 노선도 신설해 이른바 ‘2기 GTX 시대’를 준비하기로 했다.

D·E·F 신규 노선은 제5차 국가철도망계획에 전체 노선을 함께 반영하고, 속도감 있는 사업을 위해 구간별(1~2단계) 개통을 추진하며, 1단계 노선은 임기 내 예비타당성 조사 동시 통과를 추진할 예정이다.

검단신도시를 지날 것으로 예상되는 GTX-D 노선은 부천 대장을 분기점

로 김포 장기와 인천공항으로 갈라지는 노선과 삼성을 분기점으로 교산과 원주로 갈라지는 노선이 이어진 ‘더블 Y자’ 형태다. D 노선이 개통되면 검단신도시에서 삼성역까지는 약 30분대로 출퇴근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부동산원의 ‘주간아파트동향’에 따르면 3월 둘째 주(11일 기준) 인천 아파트 매매가격은 0.01% 하락했다. 낙폭이 전주(-0.03%)보다 축소됐지만 19주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다. 서구(0.04%→-0.02%)는 청라·가정동 등에서 급매물 위주로 거래가 발생하며 하락 전환했다. 지난해부터 내림세가 이어진 서구의 매매가격은 1월 마지막 주(0.02%) 상승 전환한 후 6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우미린더시그니처’는 이달 전용면적 84㎡가 6억8000만원에 거래됐다. 지난 1월 거래가격(5억8000만원) 대비 1억원 올랐다.

우미린더시그니처와 함께 검단신도시 일대 집값을 견인하는 ‘호반써밋1차’의 경우 이달 전용면적 72㎡가 6억3000만원에 거래되면서, 1개월 만에 3000만원 상승했다.

/김대환 기자 kdh@metroseoul.co.kr

청약홈 개편 끝... 내달까지 3만가구 푼다

서울 강동구 ‘그란츠 리버파크’
김포 북변 우미린 파크리브 등
수도권 1.3만가구 등 일반분양

청약홈 개편이 마무리되면서 봄철 성수기 아파트 분양시장이 열린다.

24일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이달말~4월까지 분양을 계획 중인 곳은 총 30곳, 2만9519가구(약 3만가구)다. 이 가운데 조합원분을 제외한 2만2492가구가 일반분양 분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엔 총 21곳, 1만4765가구(일반 1만1396가구) 대비 약 2배 가량 많다.

권역별로는 ▲수도권 13곳, 1만2798가구(일반 1만4267가구) ▲지방광역시 11곳, 1만932가구(6506가구) ▲지방도시 7곳, 5789가구(일반 5560가구) 등이다.

봄 분양시장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분양가가 계속 오르면서 분양을 늦게 받을 수록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인

식 때문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공개한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에 따르면 2월말 기준, 전국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3.3㎡당 1773만9000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3.5%나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내집마련 수요자의 공포심은 날로 커지고 있다. 문제는 앞으로도 더 오를 것이란 점이다.

이외에도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합산, 부부중복청약, 장기가입자 우대,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 완화(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 신생아 가정 우선 배정 등 완화된 청약제도 또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에서는 서울, 경기, 인천 모두에서 분양소식이 있다.

서울 강동구 성내동에서는 ㈜디에이치프러티원(시행)과 DL이앤씨(시

공)가 성내5구역 정비사업을 통해 ‘그란츠 리버파크’ 407가구 중 36~180㎡ P, 327가구를 일반분양한다. 금강주택은 경기 오산시 세교2지구에서 ‘오산역 금강펜테리움 센트럴파크’ 84㎡, 730가구를 선보인다.

우미건설은 경기 김포시 북변3구역을 재개발하는 ‘김포 북변 우미린 파크리브’ 59~84㎡, 1200가구 중 831가구를 일반분양한다. 김포골드라인 걸포북변역이 도보권이다. DL건설은 대전 중구 문화2구역을 재개발 해 짓는 ‘e편한세상 서대전역 센트로’ 39~84㎡, 749가구 중 495가구를 일반분양한다.

롯데건설은 부산진구 가야동에 짓는 ‘가야역 롯데캐슬 스키아일랜드’ 59~84㎡, 725가구를 분양한다. 부산지하철 2호선 가야역 역세권이다. 롯데건설은 또 ‘김해 구산 롯데캐슬 시그니처’ 84㎡, 714가구를 선보인다. /이규성 기자 peace@

‘김해 삼계 푸르지오 센트럴파크’ 분양

대우건설, 6개동 630세대 일반분양
남향 위주 판상형·혼합형 구조 설계
여유로운 동간 거리에 숲세권 위치

대우건설이 ‘김해 삼계 푸르지오 센트럴파크’를 분양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김해 삼계 푸르지오 센트럴파크’는 경상남도 김해시 삼계동 일원에 들어선다. 지하 3층~지상 28층, 6개동, 총 630세대를 일반분양으로 공급한다. 전용면적별로는 ▲84㎡A 118세대 ▲84㎡B 87세대 ▲84㎡C 268세대 ▲84㎡D 26세대 ▲110㎡ 131세대로 구성된다.

단지는 신명초등학교가 도보권에 위치한다. 분성중, 분성고, 구산고 등 초중고를 아우르는 학군을 갖췄다. 인근에 장신대역 학원과 화정글샘도서관 등 다양한 교육인프라도 들어서 있다. 분성산, 경운산에 둘러싸인 숲세권에 위치해 있으며 해반천을 따라 마련된 산책로와 김해 시민체육공원 등도 가깝다.

대우건설은 주민들의 니즈를 반영한 설계와 커뮤니티 등 차별화된 단지를 선보인다. 남향 위주에 판상형 구조(84A·84B·110)와 혼합형 구조(84D), 2면 개방형 설계(84C)를 적용해 채광성



‘김해 삼계 푸르지오 센트럴파크’ 조감도.

/대우건설

과 일조권, 조망권을 극대화했다.

세대당 1.36대 이상의 주차공간 설계로 넉넉한 주차공간을 확보했고 택배 차량도 진입 가능한 100% 지하주차를 통해 차량과 보행동선을 분리한 안전한 단지 환경을 조성했다. 넓은 중앙광장을 배치해 여유로운 동간거리를 확보하고 지상에 차 없는 공원형 단지로 설계했다.

대우건설 분양관계자는 “김해 삼계 푸르지오 센트럴파크는 숲으로 둘러싸인 쾌적한 숲세권과 삼계 중심상권 인프라를 공유할 수 있는 단지”라면서 “경전철 이용편의를 높일 수 있는 삼계역 간이승강장까지 신설되고 나면 최적의 주거입지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대환 기자

하나금융, 명동서 ‘줍깅’ 등 봉사활동 실시

하나금융그룹이 명동상인협의회와 함께 지역사회 소상공인을 위한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그룹 임직원 및 가족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행복상자 전달 ▲일상 속 환경보호 활동 ‘줍깅’으로 진행됐다.

먼저 임직원들은 그룹 명동사옥 대강당에서 소상공인분들을 위한 행복상자를 만들고 명동 인근의 소상공인 사업장 100곳에 직접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

다. 또한 지역사회 소상공인들에게 노후 간판교체와 매장 인테리어 등 실내 개보수를 지원하고, 메뉴개발 및 마케팅 등 1대1 상담과 토론회를 제공 하는 하나금융그룹의 대표 소상공인 지원사업 ‘하나 파워온 스토어’ 홍보를 진행하며 도움이 필요한 소상공인들이 지원을 받으실 수 있도록 안내했다.

이후 임직원들은 일상속에서 손쉽게 실천할 수 있는 환경보호운동 ‘줍깅’을 통해 명동 인근 지역의 환경정비를 시



강태은 명동상인협의회회장(왼쪽부터)과 지역 소상공인, 하나금융그룹 임직원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하나금융그룹

행하며 이날 봉사활동을 마무리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BNK금융

주당 510원 배당

BNK금융지주는 지난 22일 문현동 부산은행 본점에서 제13기 정기주주총회를 열어 2023년 재무제표를 승인하고, 현금배당을 결의했다고 24일 밝혔다.

BNK금융그룹은 지난해 부실 위험에 대비한 대손충당금의 선제적 적립과 상생금융 지원의 일회성 비용 증가로 당기순이익(지배지분기준)이 6398억으로 전년 대비 1452억원 감소했다. 이번 주주 배당금은 주당 510원(중간배당 100원 포함)으로 결정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